

發 刊 辭

21世紀는 「環境의 世紀」가 될 것이라는 데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環境保全 水準은 세계 속에서 우리의 位相을 評價받는 하나의 尺度가 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3월 21일 金泳三 大統領께서는 綠色環境의 나라 建設을 위한 「環境大統領」宣言을 발표하시고, 環境共同體 建設을 위한 5대 기본원칙과 7대 시책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기본원칙 중에서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 「공동책임과 생활 속의 실천」, 그리고 시책과제 중에서는, 「환경자치체제」, 「환경교육의 강화」, 「환경기준의 선진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합니다.

어느 여론조사전문기관이 행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90%에 가까운 우리 나라 국민들이 21세기에는 사회복지나 경제적 풍요보다 깨끗한 환경이 더 중요해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였고, OECD에도 가입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뒷받침을 하였고, 그 결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도시화 현상·인구의 증가,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의 편이성과 쾌락성에 치중하게 되어 環境汚染·破壞의 深化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環境危機」는 “하나뿐인 地球와 그 속에 살고 있는 人類를 救하자”는 노력이 1972년 6월의 UN人間環境會議의 「世界人間環境宣言」에서 비롯하여 WTO(世界貿易機構) 등의 발족을 계기로 한 “그

린라운드”(Green Round)法理의 등장, 그리고 1992년 6월의 유엔 環境開發會議(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가 채택한 리우宣言과 議題21(Agenda 21)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의 綠色世界를 향한 노력에 協助·先導하기 위한 우리 韓國環境法學會의 활동도 꾸준히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학회는 많은 학술발표회를 국내외의 저명한 인사를 모시고 개최하였고 그러한 성과를 우리 학회의 研究誌인 『環境法研究』를 통하여 널리 발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알찬 성과와 업적은 李尙圭 名譽會長님을 비롯하여, 회장을 역임하신 徐元宇, 全昌祚, 金伊烈, 朴鈺旻, 吳錫洛, 金鐵容, 顧問님, 그리고 여러 任員님과 회원님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으므로 해서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韓國學術振興財團, 環境部의 꾸준한 물심양면에서의 도움이 우리 학회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된 데에 대하여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환경의 세기』가 될 21세기에든 이제 몇 년밖에 남지 않았고, OECD加入에 따른 先進國水準의 環境保全이라는 과제는 앞으로 우리 학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環境法制의 全面的 再檢討가 우선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産業協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결은 國際的 視野에 입각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회는 올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環太平洋法律家會議理事會가 『環境과 貿易』라는 主題로 열리는 환경법회의를 계기로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많은 일을 위해 분골쇄신 노력하시는 朴秀嫻 總務理

事님과 洪準亨 研究理事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發刊辭에 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韓國環境法學會
會長 金元主